

# 강원 등 4곳 '규제자유특구' 추가... 의료 빅데이터 메카 기대

군산서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  
2030년까지 매출 1.5조 등 예상  
김부겸 "한국판 뉴딜 뒷받침돼야"

강원(정밀의료), 충북(그린수소), 충남(탄소저감 건설소재), 경북(스마트그린물류)이 규제자유특구로 추가 지정됐다.

새로 지정된 이들 4곳 규제자유특구를 통해서 2030년까지 매출 1조5000억원, 고용유발 2111명, 창업과 기업유치 339개사 등의 성과가 예상된다.

4곳이 추가로 지정됨에 따라 규제자유특구는 총 28개로 늘었고, 이 가운데 사실상 졸업하는 1차 특구 5개를 제외하면 현재 23개 특구가 운영되고 있다.

또 올해 8월 중 실증이 끝나는 1차 특구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5개는 임시허가를, 17개는 실증특례를 연장했다.

정부는 1일 전북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4곳을 규제자유특구로 새로 지정하는 등 관련 안건을 통과시켰다.

새로 지정된 규제특구 중 강원은 환자의 의료정보와 인공지능(AI)을 결합한 신의료기술로 개인 맞춤형 의료시장을

을 선도한다.

강원도는 특히 의료산업육성 기반이 잘 갖춰진 지역으로 과학기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지원하는 정밀의료 빅데이터 구축사업 등과 연계해 미래 헬스케어를 주도하는 정밀의료 빅데이터 산업의 메카로 성장이 기대된다.

충북은 생활폐기물로 만든 바이오가스과 저장과 운송이 쉬운 암모니아를 활용해 경제성있는 그린수소를 생산한다. 중간 유통과정 없이 직접공급을 허용해 그린수소의 경제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향후 그린수소의 생산과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은 정유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이산화탄소를 결합시킨 친환경 건설소재를 만들어 탄소중립을 실현한다. 지금까지 정유공장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는 그대로 공기중에 배출했고, 이산화탄소전환물은 폐기물로 지정돼 건설소재로 재활용하는 것이 막혀 있었지만 이제는 이산화탄소 발생도 줄이고 시멘트 등 건설소재로 상업화도 할 수 있게 됐다.

경북은 도심 내 공영주차장이 물류센터와 친환경 배송기지로 탈바꿈해 친환경 도심 생활물류 서비스 혁신을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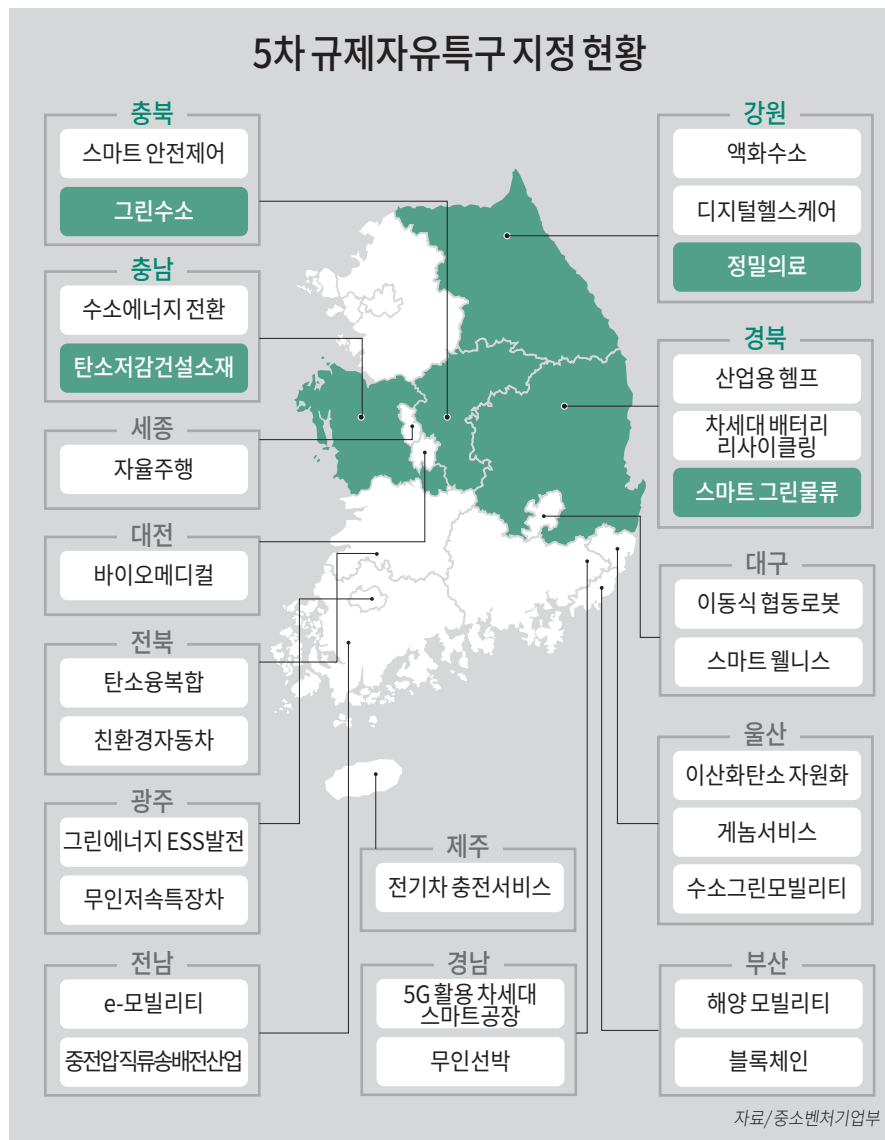
온라인 소비와 신속 배송 수요 증가로 급증하는 생활물류 시설의 공간 부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존 40% 이하였던 주차장 부대시설 면적 제한을 완화했다. 또 그동안 안전기준이 없어 금지됐던 3륜형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해 근거리 친환경 배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날 특구위원회에서 1차 규제자유특구 안착화 방안도 심의·의결했다.

권철승 중기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 제도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법령정비를 통한 특구사업의 안착화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2019년 7월 당시 1차로 지정된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대구 스마트웰니스, 세종 자율주행,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부산 블록체인,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전남 e-모빌리티 특구의 24개 사업이 오는 8월 실증이 종료돼 사실상 '졸업'한다.

이날 위원회에서 그동안의 안전성 입증결과, 사업화 가능성, 추가실증 필요성 등에 따라 임시허가 부여, 실증특례 연장 등의 규제특례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LX 5개 자회사, 'LX' 간판 달고 새 출발

LG상사·LG하우시스 등 사명 변경  
완전한 LX일원으로서 면모 갖춰



지난 5월 ㈜LG에서 인적분할해 설립한 ㈜LX홀딩스 자·손회사들이 줄줄이 'LX'로 간판을 바꿔달았다.

LX홀딩스는 LG상사, 판토스, LG하우시스, 실리콘웍스, LG MMA가 1일부터 새 사명인 'LX인터내셔널', 'LX판토스', 'LX하우시스', 'LX세미콘', 'LXMMA'를 공식 적용한다고 밝혔다.

LX인터내셔널은 지난달 25일 정관변경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LG상사'에서 'LX인터내셔널'로 사명변경을 확정했다. 영문 사명은 'LX International'이다. 신규 사명은 과거 트레이딩 위주의 상사업을 새롭게 정의하고, 1등 DNA를 내재화해 세계 시장에서 활약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 사명 변경은 과거 '럭키금성상사'에서 'LG상사'로 바뀐 지 26년 만에

다. LX인터내셔널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점과 성장성을 고려해 친환경·디지털·헬스케어 등의 미래 신산업에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LX인터내셔널의 자회사 LX판토스(판토스)도 사명을 바꿨다. 영문 사명은 'LX Pantos'다. 2015년 LX인터내셔널(LG상사)에 인수된 LX판토스는 2017년 '범한판토스'에서 '판토스'로 사명을 교체한 바 있다. 글로벌 종합물류 기업인 LX판토스는 약 360개의 국제물류 거점을 중심으로 육상·해상·항공 화물 운송을 진행하며 사업 영역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국내 인테리어 자재 1위 기업인 LX하우시스(LG하우시스)는 2009년 4월 LG화학에서 분할 설립된 후 12년 만에 LG 대신 'LX'로 사명을 바꿔 달게 됐

다. 영문 사명은 'LX Hausys'다.

프리미엄 인테리어 브랜드인 'LG Z:IN(LG지인)'도 'LX Z:IN(LX지인)'으로 새단장해 소비자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LX하우시스는 올해 B2C 중심 인테리어 사업 집중 육성과 고부가가치 제품 확대를 통한 수익성 개선을 중점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LX세미콘(영문 사명 LX Semicon)은 국내 1위 반도체 설계기업인 실리콘웍스의 새로운 이름이다. 지난 1999년 설립돼 22년 만에 사명을 바꾼 LX세미콘은 고객사 확대와 함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영역으로의 기술력 확장을 통한 사업 다각화를 꾀할 계획이다.

화학소재 자회사인 LX MMA(LG MMA)는 국내 최초의 MMA(메틸메타크릴레이트) 제조·판매 회사로 1991년 설립됐다. 설립 당시 '럭키MMA' 상호는 지난 1995년 'LG MMA'로 한차례 변경된 후 이달부터 LX MMA로 새출발하게 됐다.

/김승호 기자

## 중기부,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참여사 선정

최종 선정기업, 기보 특별보증 최대 100억까지

2021년도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참여기업 20곳이 뽑혔다.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은 벤처 강국을 위한 'K-유니콘 프로젝트'의 2단계 사업으로 최종 선정기업은 기술보증기금의 특별보증을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특별보증에는 50개 기업이 신청해 요건검토와 서면평가, 기술평가, 보증심사를 거쳤으며 마지막으로 국민심사단이 전문가와 함께 참여하는 대면평가를 통해 20개 기업을 선정했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참여사 20곳에는 ▲디엑스 ▲레모넥스 ▲로앤컴퍼니 ▲로킷 헬스케어 ▲리테일엔사이트 ▲링크플로우 ▲메디쿼터스 ▲뮤직카우 ▲바이포엠 ▲셀라토즈 ▲테라퓨틱스 ▲소

설빈 ▲아워박스 ▲에스엠랩 ▲엑셀세라퓨틱스 ▲엔젤게임즈 ▲제이슨그룹 ▲클로버게임즈 ▲트위니 ▲팁프레스 ▲핏핏이 이름을 올렸다.

중기부는 또 그동안의 'K-유니콘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기업들 성과도 발표했다.

중기부에서 2019~2020년 아گی유니콘200 및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에 참여한 97개 기업 중 과반이 넘는 50개 기업이 총 1조1872억원의 후속 투자를 유치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참여기업 중 위이드는 '손정의 비전펀드'에서 2000억원을 유치했고, 직방은 올해 6월 벤처투자기관간 구조 거래를 통해 기업가치를 약 1조1000억원으로 인정받으면서 유니콘기업에 올랐다.

기업공개(IPO)와 인수합병(M&A)을 통해 회수에 성공한 기업들도 있었다.

/김승호 기자

## 기업회생지원협, 재도전 기업 지원

오마이컴퍼니와 포괄적 사업제휴

(사)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가 오마이컴퍼니와 손잡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재도전 기업 발굴·지원에 나선다.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는 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오마이컴퍼니와 포괄적 사업제휴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클라우드펀딩 플랫폼으로 클라우드펀딩대회 프로그램을 처음 창안하기도 한 오마이컴퍼니는 임팩트플러스 사모펀딩 서비스, 로컬펀딩, 개인펀딩 서비스 등을 하고 있다.

특히 기업회생지원협회는 참여 기업들이 심시일반 모은 자금으로 코코타투 자조합을 설립하고 1호 펀딩으로 오마이컴퍼니 지분 10%도 확보했다.

회생기업, 유망기업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양측이 더욱 전략적으로 협력해나가기 위해서다.

이번 협약 사항에는 ▲회생기업, 중소기업 등 유망 기업의 발굴 및 추천 ▲재무진단 및 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자금 조달 교육 및 컨설팅 ▲증권형 클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조달 지원 ▲유망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엔젤투자자 모집과 육성 ▲개인투자조합 모집 또는 직접 투자 지원 등의 내용이 두루 포함돼 있다.

/김승호 기자

## 휴넷, 쉬플리코리아 흡수 합병

쉬플리코리아, 수주 성공률 87%

휴넷이 글로벌 수주 컨설팅 기업 쉬플리코리아를 흡수 합병했다.

1일 휴넷에 따르면 이번에 흡수 합병한 쉬플리코리아는 세계적인 수주 컨설팅 회사인 '쉬플리'의 한국지사로 창립 이후 13년간 고객 수주 성공률 87%의 성과를 거뒀다. 쉬플리코리아는 선제안 영업, 제안 영업 교육, 국내외 제안서 개발, 경쟁 프레젠테이션 등 수주에 필요한 전 분야 컨설팅을 제공한다.

휴넷은 이번 합병으로 교육과 컨설팅 사업의 시너지 창출을 통해 기업교육 선도 기업으로서 확고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휴넷과 쉬플리코리아는 지난 2018년 4월에 인수합병(M&A)을 진행한 뒤 양사 간 활발한 교류를 통해 매출 신장 및 사업 확장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며 합병을 준비해왔다. 쉬플리코리아는 합병 후 김용기 대표가 사업부 대표직을 유지한다.

/김승호 기자